

석굴암 본존불의 위상에 관한 고찰과 제언

Status of the Principal Statue of Sakyamuni in Seokguram Grotto and Suggestions

고웅곤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Woong-Kon Koh(kwk-art@konyang.ac.kr)

요약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 본존불의 위상이 이름값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명호(名號)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과 세계인과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석굴암 본존불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불상의 형식과 석굴암 본존불의 특징들을 비교 검토하고 부처의 원류(原流) 또는 원형(原型)으로서 석굴암 본존불의 위상을 되짚어 보게 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문헌정보를 토대로 한 기술적인(Descriptive) 방법으로 탐구하였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와 그 효(效)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샹그리라(Shangri-La)를 예시로 비교 연구하면서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는 명호가 지닌 정체성의 혼돈을 지적하고 이의 확립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 주도형 민간 학제 연구를 통해 총체적인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중심어 : | 석굴암 | 본존불 | 원형 | 샹그리라 | 실크로드 |

Abstract

In spite of the registration on the world heritage in UNESCO the principal statue of Sakyamuni in Seokguram Grotto is considered that its worth doesn't reach to its fame. The exact name of the statue does not establish yet and the statue has insufficient of storytelling or narrative structure on it. Regarding these issues the statue need to enhance the real value of it. This study pursue reconsidering the status of the principal statue compare to general statue of the Buddha and searching for the originality and archetype as a Buddha in Seokguram Grotto. Descriptive method is adopted as a approach to this theme with preceding research analysis and reference research. As a result various alternatives are drew back as a countermeasure. One thing is a government leading system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other is it need to increase the fame of Sakyamuni statue in Seokguram Grotto wit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 Korea.

■ keyword : | Seokguram Grotto | Principal Statue of Sakyamuni | Archetype | Shangri-La | Silk-Road |

1. 서론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시대 경덕왕 10년(751)에 창건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다. 이 중 석굴암의 본존불(本尊佛)은 그 종교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우리 조상이 남은 가장 탁월한 작품이며 전 세계의 종교 예술상 가장 우수한 유산[1]으로 자부해 오던 중 1,200여 년이 지난 1995년에 이르러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의 일부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한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국가의 격과 관광객의 유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부(負)의 효과도 없지 않다. 보존과 유지를 담보해야 하는 규약과 한 국가의 재산권이 공동 소유 성격을 지닌 '인류의 유산'이란 이름으로 통칭되는 순간 '심리적 상속'에 관한 부담이 존재하게 된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 문제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점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지적된다. 다행히 금세기에 이르러 세계화에 이은 지방화(glocalization)까지, 세계를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으로 형용되고 있는 발전과 개발의 패러다임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인식에서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다. 석굴암은 세계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문화 그 이상의 원리로 작동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 것이다.

석굴암의 본존불에 대한 연구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어 온 주제이다. 이 주제를 대별해 보면 본존불을 포함한 석굴암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와 미학적, 조형학적, 도상학적 관점의 미술사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미학적 관점에서 보는 본존불은 시대에 따라 그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주장이든 수용이 가능하지만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단일함을 전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본존불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본존

불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를 불국사에 속한 한 하나의 암자로 보아야 할지, 애초에 자연적인 굴을 파 조성한 굴이 아니므로 석굴이 아닌 석불사라는 이름의 흔적을 좇아야 하는지 등의 명호(名號)에 관한 주장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의 연구 동기는 이러한 문제점 언저리를 배회하던 중, 중국이 자국의 특정한 지역을 전 세계에 '상그리라'의 원류(源流)로 선언하여 이상향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의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을 확정(劃定), 선점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필자가 조소(彫塑)를 전공한 인연으로 『統一新羅의 佛像彫刻에 관한 考察』[2]을 다시 들여다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석굴암 본존불이 석가여래의 원형(原型)으로 손색이 없다는데 착안을 하고 그 타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의 원형(Archetype)이론과 플라톤(Plato)의 이데아(Idea)론을 대입하여 본존불을 보는 시각은 본존불이 단순한 조형 이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필자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선학들의 탁월한 연구 결과물들에 의탁하기로 하고 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본존불의 위상이 세계유산의 가두리에서 벗어나 부처상의 원류 또는 원형으로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명호쟁론(名號爭論)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지위를 획득한 자랑스러운 문화 자원이 여전히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선대(先代)의 의지라기보다 외부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당대(當代)의 소임이 없지 않다. 첫째, 당위(當爲)에 마땅하지 않다. 물론 창건 당시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이름이 있었을 것이나 이를 확인해 줄 사료(史料)가 부재한 탓에 꾸준히, 그러면서도 '여전히' 탐구되어 온 주제이기도 하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신앙의 근간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이 명호의 혼선으로 인한 결과는 그 진정성(authenticity)을 훼손하게 된다. 본존불의 명호가 중요한 소이(所以)는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당대의 사회상이 왜곡되지 않고 후대에 전

달됨으로써 역사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1.1 석굴암 vs. 석불사

본존불이 있는 석굴암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통일된 명칭을 갖지 못하고 대체로 ‘암자와 사찰’로 양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석불사(石佛寺)라는 명칭과 석굴암(石窟庵)이라는 명칭이 그것이다.

사찰은 전통적으로 사부대중이 모여 예배와 수행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일컫는 말로 산스크리트의 상가라마(Saṅghārāma)의 음역을 딴 승가람마(僧伽藍摩)로 불리다가 이를 줄여 가람의 형태로도 쓰인다. 암자와 사찰이 주는 의미가 다른 것은 승가의 수행 장소로 한정되는 것과 일반 대중들의 예배장소로서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단순히 불국사에 종속된 암자로 보는 견해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당시의 사회상을 미뤄 짐작하는 데 오류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대체로 창건 당시에는 석불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불국사에 속한 암자로 불리게 되었다는 견해와 구한말에 이르러 몇 차례의 중수과정을 겪었으나 석굴암으로 통칭해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이다[3]. 이러한 석굴암은 불국사와 이웃하여 그 양면에 각기 자리잡고 있다. 불국사는 토함산의 서쪽 기슭에서 남향(南向)하고 있고 석굴암은 그 동쪽 산마루 가까이 동동남(東東南)으로 신라의 동해구(東海口)를 바라보고 있다.

이 두 절은 경덕왕 때에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 조영의 주관 인물이 모두 당시의 재상을 지낸 김대성이라는 사실이다. 불국사를 현생이친(現生二親)을 위하여 석불사는 전세부모(前世父母)를 위해 창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얼핏 효성(孝誠)에 기인한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왕실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김대성이 죽은 후 국가에서 불국사를 완성했다는 것과 아울러 석불사가 신라 오악(五嶽)의 하나인 동악(東嶽)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성 한 사람의 원당(願堂)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3]. 석굴암으로 통

칭되고 있는 명호를 석불사로 개칭하여 부르자는 주장을 내세우려는 게 아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석굴암으로 유지하되 그 배경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본존불이 무불상(無佛像)시대 이후 부처의 원형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석굴암이 태동될 당시의 배경을 사상적 측면에서 좀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1.2 융복합 개념의 사상

통상 어느 부처님을 주존불로 모시느냐에 따라 불전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종파에 따라 주존불이 다른데 대응전, 무량수전, 대적광전 등이 그것이다. 석굴암에 대하여는 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이 사찰이든 암자이든 그 조성배경에 종파를 떠나 한 국가의 종교적 이념에 귀의하기보다 호국적 의미로서 석굴암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주목을 끌게 된다.

이런 조성배경에 대한 여러 근거로 제기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사상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21세기에 이르러 각광을 받고 있는 융복합(融複合)시대의 통섭(通涉)에 가까운 사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소의경전(所依經典)에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종파의 이념이 고루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법화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견해는 석가모니불이 여러 대보살, 대제자를 모아 설법하는 형상을 나타냈으며 굴 안에서 발견된 방형탑신(方形塔身)에 조각된 천불상을 들고 있다[4].

이렇듯 명호와 관계없이 석굴암의 전설과 후설에 새겨진 불상들은 복합적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조성되었던 것임에는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법화경에 근거하여 석굴암이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고 한국불교연구원이 발표한 해석은 석가모니께서 독룡(毒龍)이 살던 석굴을 십대제자와 대법천, 제석천, 금강역사를 시켜 항복시키고 용왕과 그 권속들을 교화 구제한다는 이야기에 근거하여 석굴암이 조성되었다. 그 위에 법화, 화엄, 정토 등의 사상이 교묘하게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서 신라 특유의 구세호국(救世護國)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1]고 할 뿐만 아니라 효(孝)사상과 왜적 격퇴를 위하여 석굴을 조성하고 영원히 상주하게 하여 언제나 나

라를 지키도록 한 사상 등, 법화와 화엄을 포함한 신인종사상에 의해서 석굴암이 창건되었다고 하는 주장[5]이 그것이다. 이상의 주장들은 사상적 배경이 다른 계경전을 아우르면서 전통적 가치로 여전히 한국의 미덕으로 손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효사상과 호국 사상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국내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이 석굴암을 알리는 데 그 기술적 예술적 조성의 특성만이 아닌 사상적 배경을 주지하여 민방에 알리는 데 주력해도 좋은 소이가 있다 하겠다.

1.3 석가여래 vs. 아미타여래

미술사학과와 불교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석굴암의 본존불을 제1의 불상조각으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문예 작품 등에서도 이를 찬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일된 명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학자에 따라 석가모니불이라고도 하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다. 한 논문에서 밝히듯 석굴암의 연구에 힘을 쏟은 국내 연구자들로 민영규, 황수영으로부터 시작하여 김상현, 고익진, 문명대, 김리나에 의해 그 가치를 올리다가 강우방에 의해 완결되었다[6]는 견해를 밝힌 황호균의 논거 내용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연구들은 심도 깊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존불의 명호에 가서는 어느 한 경전에 근거한 부처상으로 고집하고 있어서 여전히 명호의 논란이 불식되지 못한 형편이라는 주장에 공감을 한다. 전항에서 살펴본 《석굴암 vs. 석불사》의 명호 논란과 마찬가지로 황호균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들 연구의 논거 방식은 명호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주장에 앞서 명호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 셋을 들어 이들 주장의 논거를 먼저 살펴보는 일은 합당할 것이다.

표 1. 석굴암 본존불의 명호에 대한 제 견해

명호	학자명
석가모니불	김상현, 문명대, 김리나, 남천우
아미타불	황수영, 고익진
비로자나불	신현숙, 강우방
기타	이축불(김영주)석가(강우방)

1.4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이라는 논거의 예시로 신현숙은 십일면관 음보살을 중시하였고 강우방은 육조단경의 삼신사상이 구상화할 때 법보화신의 한 세트를 이루는 삼신불상이 예배의 대상으로 성립되고 그것들은 각기 다른 여래들의 결합이 아니라 삼신일체의 성격을 띠는 점으로 비로자나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장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묘사된 인도 부다가야의 마하보리사(大覺寺)의 성도상과 석굴암 본존상의 수인과 크기 및 방향이 같은 논거로 강우방은 석가모니불이라는 견해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1.5 아미타불

수인(手印)을 결한 형태에 따라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한 근거로 아미타불을 들고 있다. 다른 이유로 근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방편으로 아미타불과 정토를 끌어들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경주 왕실 김씨일가의 서방극락정토를 염원하는 신앙적 성격이며 그 이유로 부처의 좌향이 동해 문무대왕의 산골처(散骨處)인 대왕암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아미타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도 비판에서 제기되는 모순이나 지적에 대한 대응 논거가 박약한 건 사실이다.

1.6 석가모니불

본존불을 불안하고 있는 석굴암을 통명으로 사용하고 있듯이 본존불을 석가모니불로 보는 견해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있다. 이의 근거로 석불사는 국토해의 상징적 표현, 불국사는 세계해의 표출이라거나 관불삼매경은 화엄경과 법화경을 포함한 신인종 사상의 구현으로 보고 부모 효도, 진호국가, 왜적퇴치의 항마촉지인 점에서 장육석가불이라는 주장, 석존의 성도시 정각을 상징하는 항마촉지의 수인은 화엄경을 설한 석가의 모습이라면서 석굴암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화엄종이 불교신앙의 중심이었고 그에 따라 비로자나불의 황홀함을 설명하긴 하나 형태로써 드러나는 부처의 형상은 역시 촉지인의 석존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는 논거들을 들고 있다[6].

이상으로 살펴 본 명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종파에 따라 어느 소의경전을 들고 보느냐에 따라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불 혹은 석가모니불이라는 명호가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지적하면서 화엄사상에 기반을 둔 원융회통(圓融會通)적 성격임을 지적한 선행연구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II. 본존불의 조형적 특성과 위상 제고

1. 불상의 해석

석굴암의 본존불을 예배대상으로 볼 때는 전실(前室)의 구조에 근거를 두고 서방정토(西方淨土)의 상징적 조형물로 볼 때는 원형 공간을 한 뚝 형태의 후실(後室)을 논거로 드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본존불을 봉안하고 있는 석굴암의 조성술(造成術)은 놀라우리만치 황금비례에 가깝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조성된 면모를 보인다. 그것은 단순한 조형물의 집합이 아니며 반대로 본존불과 조각군(彫刻群)을 배제하고 석굴암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도 가둘 수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다.

즉 이 둘은 외형적인 면에서나 사상적인 면에서 융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면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불상은 개념적으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조형적으로 표상되는 예술적인 상징형식이며 수행자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붓다가 불상으로 형상화되었더라도 그 이미지에는 당시를 풍미하던 상상적 미적 조합이 이상형으로써 불상에 반영되었을 것[7]이며 석굴암의 본존불이 여기에 부합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2. 원류(源流) 이미지로서의 본존불

지금까지 살펴본 본존불에 대한 연구 검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선행연구에 중점을 두어 부처상의 원류 이미지로서 그 마땅함을 살펴보았다. 이때 원류를 축어적(逐語的)으로 본래의 줄기 또는 본바탕 정도로 해석하게 되면 소의경전에 입각한, 혹은 그렇지 않은 개인적 신앙심에 의한 경배의 결과물로 제작된 불상이라 하더라도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어느 불상이라도 원류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오로지 하나인 유일한 그 무

엇을 지칭할 때 적합한 용어라기보다 근본을 잃지 않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용어로 석굴암의 본존불이 부처의 원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또는 그 전형(典型)으로 부상할 수 있으려면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원형(Archetype)이론이나 플라톤(Plato)의 이데아론에 근거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을 개괄하자면 둘 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事象)에서 진본(眞本) 또는 참으로 향하여 오직 유일무이한 특정 원리로 귀결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을 구획하지 않은 채 인류의 정신 문명적 산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문학을 비롯하여 여러 예술 분야에서 전형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부처의 형상도 그 하나에 해당한다. 특정 지역에서 최초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원류로 한다면 간다라 양식의 부처상이 될 것이지만 집단무의식에 나타나는 원형으로서의 부처일 것인 가에는 재고(再考)해볼 필요가 있다. 미학적 측면으로 보자면 이 분야의 제 이론을 습득한 학자들의 공통된 평가가 다수인 쪽에 평가의 척도가 기울 것이다. 원형이론으로 보자면 정각을 이룬 가장 지엄한 석존의 형상은 단지 미학적 관점만으론 접근할 수 없다.

500년의 무불상(無佛像)시대를 지나 조성된 불상은 그 존엄의 극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32길상(吉相)과 80종호(種好)를 근거로 제작되어 왔다. 융의 원형이론에 의한 화신으로 들여다보아도 좋은 근거로 추상적 세계를 가시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이다. 베다(Veda)시대 이래 이런 상호를 구비한 사람이라면 재가하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불타가 된다는 예언에 따라 불타는 32상 80종호를 타고 나왔다 하므로 불상은 그에 합당해야 한다[8]. 한마디로 부처의 갖춰야 할 외형 내지는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 특징을 열거함으로써 관상(觀相)원류 또는 원형의 이미지로서 이에 가장 근접한 불상이 석굴암의 본존불이라 하면 적어도 이 32상의 규범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80종호를 차지하고라도 32상의 모든 면모를 본존불에서 모두 발견해내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인간이 지닐 수 없는 초월적 형상으로 차별성을 부각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형상화함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원형의식이 이데아로

발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상에서 그 수인(手印)과 두상, 안면에서는 유사함에도 석굴암의 본존불은 응축된 힘과 팽팽한 양감(量感)이 특징으로 지목된다. 특히 본존과 대좌와의 높이 비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정감은 평균비례가 1:1내지 1:1.5정도로 대좌가 높은 9세기 불상과는 확실히 다른 비례감각을 보이며 가장 뚜렷이 잘 표현된 부분으로 본존불의 안면(顔面)이며 숭고미(崇高美)를 느끼게 한다. 이 본존불의 안면에서는 팽팽하고 탄력있는 피부감과 함께 길게 호선(弧線)을 이루는 양 눈썹 아래 이목구비의 형태가 초인의 격을 갖추고 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

이런 도상학적 해석 외에 본존불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 불신(佛身) 이외에 대좌와 광배를 필수 요건으로 삼아 불신의 상하 두 곳에 장엄구를 비치해야 한다. 본존상은 연꽃무늬가 아래 위로 조각된 한국 제일의 거대한 원형대좌 위에서 결가부좌 했으며 두광은 직접 머리에 부착되지 않았고, 머리에서 떨어져 후벽의 십일면관음입상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따로 둥근 연화판처럼 한 장을 끼워 넣은 형태는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신라 사람의 뛰어난 착상[9]을 들 수 있다.

3. 원류 주장 사례

석굴암 본존불이 전 세계로부터 집중을 받고 있는 불상 가운데 하나임에도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한 변방에 이상향으로 언급되고 있는 무릉도원의 표상으로 제임스 힐튼(James Hilton, 1900-1954)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에 등장하는 한 무대를 옮겨 ‘여기가 그곳’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샹그리라(Shangri-La).

소설에 이어 영화로 등장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 샹그리라는 여러 분야에서 고유명사화 되어 통명으로 쓰이고 있다. 호텔 이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로 일컫듯 미군 병사의 그곳을 샹그리라라는 은어로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격침된 거대한 군함 이름으로, 미국 육군항공대의 비밀기지 이름으로도 쓰이다

가 급기야 영어 사전에도 일반명사의 지위를 획득하여 ‘천원목가 풍의 세외도원(世外桃園)’이라는 뜻을 획득하기도 했다[10].

석굴암 본존불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가치는 이 샹그리라를 압도하고도 남는, 전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허구적 상상력이 지어낸 가상 세계를 현실로 구체화하여 속도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속성향에 제동을 걸고 시간이 멈춘 곳을 찾고 싶은 욕망을 정확히 꿰뚫는 안목을 지닌 제2의 창조자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다.

여기에서 석굴암 본존불의 위상을 재고해보지 않을 수 없다. 석굴암 본존불은 샹그리라 못지않은 서사와 이야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굴암이 ‘특정 종교의 한 암자 또는 한때의 절’로 묘사되거나 ‘특정 왕조 시대 당대의 국제적 관계를 살필 수 있는 한 단면 또는 왕실의 화장 문화의 일면’ 등으로 역사서에 기록되는 것은 21세기에는 맞지 않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20년이 지난 작금에도 2014년도 경주를 찾은 연간 방문객은 내국인을 포함하여 310만여 명에 그친다. 이 중 외국인인은 26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찾은 전체 외국인인의 25.4%에 불과, 같은 기간 설악산을 찾은 41만명(39.6%)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처져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소설 속 허구의 무대를 현실 공간으로 이전시키는 데 성공하여 그 이전에 비해 매년 두 자리 숫자의 관광객 증가율과 같은 비슷한 크기의 증가율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 속의 샹그리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현실공간으로 재생이 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석굴암 본존불의 위상을 재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소설 속의 샹그리라와 중국의 샹그리라

샹그리라(Shangri-La)는 허구로 창조된 지명이다. 다시 말해서 1933년에 제임스 힐튼이 이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을 발표하기 전까지 샹그리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소설이 주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2차 세

계 대전 전의 흥흥한 민심과 전쟁이 가져올 위기와 불안을 ‘상그리라’라는 이상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층을 확보하였고 곧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데에 있다. 소설의 주요 열개는 전쟁에 이은 이상향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 사고가 녹아 있어서 논란 거리가 되기도 한다. 유럽 세계를 뒤엎고 있던 전쟁의 광기, 자본의 모순이라는 지속적인 정열이 타버린 뒤, 인류가 필요해 마지 않은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충만 곳이 될 터였다. 곧 서구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들이 발전시켜온 문화적 우월성을 동양적 신비감 속에 구현한 세계가 바로 상그리라인 것이다[11].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1997년에 상그리라는 바로 ‘운남성(雲南省)의 적경(迪慶)’이라고 선언을 한다. 그 전에도 인도와 네팔 정부 등에서도 소설 상그리라의 배경이 자국이라고 주장하던 가운데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 입장에서 공식 선언을 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키고 선점을 통한 반사이익을 고려했을 것이다.

정확한 고증이나 다른 지역의 반발 등은 차후에 해결할 과제였고, 우선 이름부터 선점한 것이었다. 결국 4년 여의 조사와 준비 끝에 이 지명 개정은 2001년 12월 17일에 국무원에서 비준[12]되어 오늘날 힐링(healing)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이로 인한 관광객 유인효과만이 아니라 한 국가이미지의 제고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소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닮은꼴을 찾아낸 가치 외에 소설에 묘사된 동양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혐오스러운 감정을 상관하지 않은 오직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국한한 것이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한 작가의 인물에 대한 묘사(인종적 시각)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더 잘 살아내기 위한 안식처로서의 탐구여행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IV. 서방정토(西方淨土)로서의 석굴암 본존불

그렇다면 석굴암 본존불은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겠는가. 석굴암 본존불은 내세(來世)를 포괄하는 이상향

(理想郷)의 상징으로서 엄격히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이 점이 상그리라와 닮은 면이면서 다른 면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존불이 아미타불이란 주장에는 이 점을 뒷받침하는 데 더욱 설득력이 있고 정각을 이룬 석가여래상이라 해도 진실과 주실에 팔부신장상을 비롯, 사천왕상, 천부상, 보살상, 나한상 등이 자리하여 불법의 세계를 그대로 들여앉힌 공간이어서 극락의 이미지인 서방정토의 세계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원숙한 조각 기법과 사실적인 표현으로 완벽하게 형상화된 본존불이며 얼굴과 온몸이 화려하게 조각된 십일면관음보살상, 용맹스런 인왕상, 위엄있는 모습의 사천왕상,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의 각종 보살상, 저마다 개성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나한상 등 이곳에 만들어진 모든 조각품들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손색이 없다는 문화재청의 소개글[13]에 방점을 두고, 이어서 석굴암 석굴은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더욱 돋보인다고 한 부분에서 그 창의와 융복합 사상의 일면을 읽을 수도 있다. 공간적 개념으로 보자면 특정 종교의 경배 공간이라는 시각을 넘어서 석굴암의 본존불은 아미타경(阿彌陀經)에서 이야기되는 도솔정토(兜率淨土)라든가 서방정토(西方淨土)로 이해되고 있는 점에서는 종교를 초월한 이상 세계의 구현(具顯)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제거한 지엽(枝葉)의 한 토막에만 초점을 둔 듯한 인상이다. 비가시적인 상그리라를 구현해 낸 중국 정부의 의지와 가치적인 본존불이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역사적 유물로만 존치될 때 제작 당시의 의지는 구현될 길이 없을 것이다.

부처의 형상이 처음으로 조상(造像)되기까지 통일 신라의 경주에 현현(顯現)한 원형으로서의 석굴암 본존불은 실크로드 문명과 함께 기점이든 종착지이든 어느 한 지점을 점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당시 신라의 영토는 실크로드의 동단 기점(東端起點)으로서 한반도가 이 영역에 속했으며 인식의 폭을 넓힌 정수일의 연구는 한반도가 바로 실크로드의 동단

임을 고증하고 있다[14]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명호를 비롯, 시류에 맞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개발 등을 통한 본존불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 다친 상처를 위무하는 힐링투어의 목적지(destination)로 그 위상을 재정립해도 좋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석굴암 본존불은 불상 조형물 중 단연 독보적이라 할 만큼 그 예술적 가치와 함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존불이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학자들 간의 순환론적 논쟁으로 일관할 뿐 그 위상에 걸맞는 명호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지적된다. 명호에 관한 정체성의 문제는 본존불을 모시고 있는 석굴암도 마찬가지다. 건립 당시 석불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일제시대를 거쳐 석굴암으로 하향 개칭된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불국사가 현생이친(現生二親)으로, 석불사는 전세 부모(前世父母)를 위해 창건한 뜻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중속된 개념이 아닌 평등과 융화의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석굴암을 단지 인공적인 굴(窟)에 본존불이 있는 암자로 잇기보다는 제 이름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화재청의 입장을 보더라도, 석굴암의 정식 명칭을 '경주 석굴암 석굴'로 표기한 것은 그 안에 내재된 훌륭한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제목만으론 언뜻 알아차릴 수 없는 형태이다. 영어 표기도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동굴을 의미하는 'Grotto'로 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핵심 가치인 본존불이 제목에 가려져 있다. 제목만으론 그저 작은 굴이나 암자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한시 바빠 재고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제언컨대 바람직한 명호로는 '석불사 본존불'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어 표기로는 'Principal Statue of Sakyamuni in Seokbulsa Temple'이라고 하여 핵심가치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옛 절터를 찾아 고증 작업을

거쳐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봄 직하다.

한편 석굴암 본존불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정부는 그 가치의 효과를 상승시키기보다는 보전과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유토피아의 유일한 원형으로 상그리라를 구현하여 자국 땅에 그 깃발을 꽂은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인상이다. 원형으로서의 부처, 이데아에 걸맞는 부처의 상이 경주 석굴암에 현현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그 맥을 잇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세계가 이미 인정하고 있고 국민들도 자긍하고 있는 바다. 차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아젠다(Agenda)를 확립하고 부처의 원형이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끝점에 있다고 대외에 천명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작업에는 학제적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 근간은 원융회통사상에 입각하여 본존불이면 족할 이름을 갖기로 하는 등의 학문적인 컨센서스를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본존불이 응시하고 있는 대왕암은 인접국가와의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그 존재 가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존불을 대왕암과 함께 효(孝)사상에 입각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다. 본존불은 그러한 이야기와 상징을 원형으로 충분히 간직하고 있다. 이상향으로서 서방정토의 원형으로, 속도전에 불붙은 현대인들의 안식처로, 본존불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열개는 효 사상(filial duty)에서 출발하여 근본을 이루고 가정의 화평과 애국(patriotism)으로 이어지는 질서를 바탕으로 서방정토를 구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의 제언은 본존불의 위상을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여러 제약 상 세계 도처에 결과부좌하고 앉은 모든 부처를 다 천견하지 못하고 기존 연구서와 문헌연구를 통해 원형으로서의 부처상을 확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조소를 공부한 조각가로서 역량을 넘어서선 무리한 접근은 아니었나 하고 되돌아보게 된다. 부족한 부분은 깊이 간직하고 다음을 기약하겠다. 한편 훌륭한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연구가 이뤄지길 고대해 본다.

끝으로 문화재청이 <문화재 소개>메인 화면에 석굴암을 한글로는 '경주 석굴암 석굴'로 표기하고, 창건 당시 석불사로 불렸다는 영문 홈페이지 설명 내용을 엔딩으로 첨부한다. 식민 치하의 잔재로 창씨개명하듯 쉽게 격하하여 부를 것이 아니라 '석불사'라는 본래의 이름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겠다. 통칭의 석굴암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의아해하면서 사족으로 남겨 본다.

The construction of **Seokguram Grotto** was begun in 751 under the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Kim Dae-seong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of the Silla Dynasty, and was completed in 774 (the 10th year of King Hyegong's reign), whereupon it was given its original name of **Seokbulsa Temple**.

참 고 문 헌

[1] 한국불교연구원, *석굴암*, 일지사, 1989.
 [2] 高雄坤, *統一新羅 佛像彫刻에 關한 考察*, 東國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92
 [3] 박찬홍, “석굴암에 대한 연구사 검토,” 신라문화재 학술발표 논문집, Vol.21, p.199, 2000.
 [4] 민영규, “석굴암 조상의 교리 배경(1),” *고고미술*, pp.1-6, 1961.
 [5] 문명대, *석굴암불상조각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 논문, pp.36-51, 1987.
 [6] 황호근, “석굴암 본존불 명호론,” 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pp.36-51, 1997.
 [7] 이해주, “불상 어떻게 볼 것인가,” *사학지*, Vol.47, p.5, 1986,
 [8] 김혜숙, “불상조각의 문화 교육적 이해,” 한국초등 미술교육학회, Vol.23, p.99, 2001.
 [9] 황수영, *석굴암*, 열화당, p74, 1992.
 [10] 김용표, “제임스 힐튼의 ‘상그리라’에 투영된 낙원을 향한 노스텔지어,” *중국학연구*, Vol.46, p.20, 2008.
 [11] 신범순, “잃어버린 지평선 찾기,” *시와시학*, 제65호, pp.13-16, 2007.

[12] 유장근, “현대 중국의 상그리라 만들기와 그 의미,”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9집, p.21, 2001.
 [13]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1,00240000,37
 [14] 정수일, “실�크로드의 새롭고 바른 이해,”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제공 슬라이드 자료*, pp.1-92, 2015.

저 자 소 개

고 응 곤(Woong-kon, Koh)

정희원



- 1993년 2월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 1999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국조각가협회 이사

<관심분야> : 조형미술, exercise prescription